

제30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 지방자치단체 중국교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

- 2018년 4월 25일,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충남 당진시 합덕읍 민원팀장 심장보 주무관이 “지방자치단체 중국교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 이번 포럼에는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충남도 미래정책과 환황해팀 신현배 팀장, 이정아 주무관, 충남도 기업통상교류과 최성민 중화권팀장, 각 시군 중국교류 담당 공무원, 당진시로 파견된 중국 옥환시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 － 심 주무관은 본인의 중국 파견경험을 토대로 기초 자치단체의 대중국교류 추진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림1> 단체사진 및 심장보 주무관 발표사진

- 심 주무관의 강연은 크게 파견공무원이 본 중국현황, 지방자치단체 중국교류 추진현황 및 문제점, 중국교류 활성화 방안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 첫 번째 부분에서는 파견 당시 현지 공무원과 일반시민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했던 경험을 소개하였다.
 - － 캠페인 홍보 시 현지 중국인들이 한국과 한국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파견근무 당시 방영되었던 한국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이 뜨거웠고 이를 통해 한류 열풍을 실감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 또한 한국김치와 당진 ‘해나루쌀’ 시식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및 충남 농산물에 대한 호응도가 낮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고 말하

충청중국포럼 소식

였다.

- 현지생활을 통해 한중 음식문화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으며, 중국 IT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말하였다.

- 두 번째 부분에서는 충남 시군별 중국교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 충남 15개 시·군 중 아산시의 경우 규모나 업무범위에 비해 업무 담당자 수가 적은 편이고, 공주시는 중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으며, 논산시와 당진시는 비교적 활발히 대중국 교류를 추진하는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국제교류 관련 예산은 서산시, 태안군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국제교류업무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조직구조, 전문 인력 및 전략 부재, 예산 부족, 공무원 위주의 인적 교류, 외부지원기관과의 협력 부족 등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 세 번째 부분에서는 충남의 중국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구조적 측면에서는 국제교류업무와 국제통상·투자유치업무의 상호연계, 언어적 역량이 뛰어난 전문 인력 충원, 국제교류 예산 확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운영 측면에서는 자매결연의 내실화, 정기적인 인적교류와 사후관리, 태권도, 전통음악 등 문화교류 추진, 자매도시 간 특산품 교류회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부여군 대외협력팀장은 사드문제가 발생한 이후 부여가 주로 추진하였던 충남-중국 간 청소년 교류가 단절된 상태라고 말하며 조속한 교류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 논산시 대중국 교류업무 담당자는 논산시가 현재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논산시는 요녕성 금주시, 하북성 낭방시, 산둥성 제녕시와 우호교류 중이고 지역특산품인 딸기의 수출을 위해 홍콩과 MOU를 맺었다고 전하였다. 또한 봄철 딸기축제와 가을철 갯갈 축제에 중국을 포함한 해외 교류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 할 예정이

라 말하였다.

-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이번 발표가 실무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당진시와 산동성 일조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한국어말하기대회’ 같은 행사를 도 차원에서도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 특히 이러한 행사를 충남소재 대학들과 연계하고 해당 대학 내 중국유학생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도와 시군의 국제교류 담당부서가 서로 업무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된 중국의 지명은 가급적 중국어발음으로 표기했지만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